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(5.15.)

- 지금부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경제는 수출·경상수지·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 - 그러나, 전쟁의 장기화로 물가·고용 등 실물·민생경제의 부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

[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]

- 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 - 현재,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고시된 최고가격을 하회하고* 있고, 주유소도 소매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등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.
 - * 5차 최고가격(5.8일~): 휘발유 1,934원/ℓ, 경유 1,923원/ℓ, 등유 1,530원/ℓ
정유사 공급가(휘발유/경유 원/ℓ): (4.2주)1,932/1,921 (3주)1,930/1,920 (4주)1,930/1,918 (5주)1,928/1,918
주유소 소매가(휘발유/경유 원/ℓ): (5.11)2,011.9/2,006.4 (5.12)2,011.9/2,006.3 (5.13)2,011.6/2,006.1 (5.14)2,011.5/2,006.2
 - 이 자리를 빌려 정유사·주유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앞으로도 가격안정을 위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 - 정부도 5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 -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 닭고기·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, 5월부터 돼지고기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.
 - 고등어 등 수요가 많은 어종은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하고, 신선란에 대해서는 추가수입도 검토하겠습니다.
-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생활과 산업현장에 필수적인 품목의 수급을 집중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논의합니다.
 - 주사기 등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품목은 사재기와 같은 시장교란 행위가 없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,
 - 요소 비료의 경우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·판매를 제한하는 등 공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.
 - 아스팔트, 레미콘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하여 내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, 필수현장부터 우선 공급하겠습니다.

['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]

- 오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.
- 지금 세계경제는 “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”되는 시점입니다.
 - 통상환경 변화와 중동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진 가운데 인공지능과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변화 속의 기회를 선점하고,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「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 - 중동전쟁의 교훈을 발판삼아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도 마련하겠습니다.
 - 또한 반도체 호조 등 경제여건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수정된 경제전망과 거시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.
-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말경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- 이어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